

9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일시 및 장소 : 2023.9.21.(목) 오후 3시, 12층 대회의실

참석 위원 : 손영준 위원장, 안호림 부위원장, 허인순, 김희중, 서신석, 진한수,
안성희, 이상헌, 이성우 위원 9인(강건기 위원 서면 제출)

회사 참석 인원 : 보도본부장, 시청자센터장, 시청자센터 부장

■ 주요 내용

▲ 손영준 위원장

성원이 되었습니다. 9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이번 달 다양한 이슈를 종합적으로 보도하는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현안을 의제화해, 공론장에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 여야 간 대치, 단식 정국, 경제 문제, 저출산 문제, 교사 시위 이슈 등에서 발 빠르고 신속한 보도에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바로 연합뉴스TV를 켜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여러 번 지적한 바가 있지만 연합뉴스TV를 보면 사회 중요 문제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연합뉴스TV는 신속성과 속보성에 따라 사건을 구성하는 팩트 보도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출입처 사람들의 말이나 보도 자료가 팩트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출입처는 팩트를 말해 주지만, 그 이슈에 관한 진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출입처는 자기에게 유리한 팩트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출입처가 제공한 사실을 검증(verification)할 의무가 언론에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주장이 난무하고, 사실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에는 주장과 사실 간의 관련성과 체계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명하게 정리해 주는 품격 있는 저널리즘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합뉴스TV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나무와 숲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저널리즘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회사에서도 더 많은 투자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슈에 대한 진실을 전하는 건 사실 저희 숙제입니다. 그냥 단순히 사실과 현상을 나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1차적인 보도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보도는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기자들이 즉각 그 진실 여부를 판별할 수 없는 사안, 그런 복잡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회사의 총체적인 능력의 부족에서 기인한 면도 있습니다. 인력이 빠듯하고 하다 보니 한 기자가 사안을 그렇게 심층적으로 파고들기 어려운 그런 구조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런 한계는 있지만 저희가 여건 탓만 할 수는 없구요. 말씀하신 대로 주어진 여건 하에서도 진실을 제시할 수 있는 보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호림 부위원장

- 먼저 9월 3일 07:02 정치 분야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단신 관련 보도 중 “땡깡”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일본식 단어라서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신해서 어떤 단어를 쓸수 있을까 보니까 땡깡 대신 생떼 이런 말들로 한글 용어를 사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 9월 4일 저녁6시에 연합뉴스TV수어 통역사가 나오는데 사실 이걸 좀 앞서서 통역을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보면서 잠시나마 해봤습니다.

- 자막오타입니다. 0905 뉴스센터 13 젊을수록X 젊을수록O, 0908 뉴스17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구속 기로...영자심사X 영장심사O, 이러한 자막오타는 방송에 대한 신뢰성이 좀 많이 떨어질 수 있으며 그래서 채널을 돌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땡깡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네요. 제가 봐도 생떼라든가 억지라든가 이런 좀 순화된 한글 용어도 있는데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건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수어 통역사 문제는 저희가 그동안 해오던 화면 배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막이 없을 때는 수어 통역사가 길게 나오기도 하고 자막이 있으면 그 부분이 가려지니까 상반신만 다 타이틀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수어통역을 하면 자막이 빠질 때 하반신까지 노출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장시간 수어통역을 하면 아무래도 힘드니까 화면 배치를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보겠습니다.

- 오타 문제는 아무래도 저희가 보도채널이다보니 자막 수가 절대적으로 많아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주로 생방송을 하디보니 자막을 신속하게 입력을 시키는데 그때그때 데스크를 보는 사람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력 부족에서 기인하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구조로는 100% 완벽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래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허인순 위원

- "예전 고통 떠올랐다"...교사들 극단선택 막을 대책은 송고시간 2023-09-11 20:08:14, 교사들의 잇단 극단 선택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격양된 교원단체들은 교권 강화 입법 없이 어떤 대책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최근 교사들의 잇단 사망 배경으로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직 사회에 퍼진 집단 우울증이 요인으로 꼽힙니다. 전교조와 녹색병원이 교사 3,500여 명의 마음 건강을 조사한 결과, 교사 38.3%가 심한 우울 증상을 보였는데, 일반 성인의 8~10%가 심한 우울 증상을 겪는 것에 비해 높은 것입니다. 아동 학대와 관련된 아동복지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대책을 내놓아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정당한 학생 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법 적용을 면해주는 게 교권 강화 입법의 핵심이라고 꼽는데, 이주호 부총리는 국회와 함께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사랑의 매 등 선생님들에 대한 교권은 사교육이 공교육을 무기력화 시킨 어느 순간부터 땅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현재 아동학대법과 교육현장의 상충적인 법안 예시 및 향후 입법화 시 고려되어야 할 내용 등 기사 제목처럼 교사들의 극단선택 및 우울증을 최소화할 구체적인 대책에 대한 좀 더 심층 취재 및 보도 요청드립니다.

- [현장잇슈] 서울 한복판 40년 만에 문 열린 '비밀 지하 공간' 가봤더니... 2023-09-09 00:14:42, 빛 한 점 들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이곳, 이곳이 서울 시내 한복판이라면 믿기

실까요? 땅속 13m 아래에 있는 거대한 지하 공간인데, 제 위로는 서울 광장이 위치해 있습니다.1, 2호선 시청역과 2호선 을지로입구역 사이에 있는 3천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공간인데, 63빌딩 높이가 약 250m 정도 되니까 63빌딩을 눕혀놨을 때보다 더 긴 공간인 셈입니다. 전쟁에 대비해 만들어 둔 지하 대피소일까요, 아니면 미지의 동굴일까요? 시민들이 몰랐던 서울 도심지의 비밀 터널을 소개해 준 점은 새로웠습니다. 옥의 티라면 취재기자의 하트 모양 안경이 상황과는 동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재밌게 구성하고자 하는 의도였던 것 같은데 어린이 프로그램 느낌이 들었습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교권 추락과 관련한 교사들의 극단 선택은 현재도 진행되는 이슈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심층 취재하겠습니다.
- '현장 이슈'에서 말씀하신대로 갑자기 뒷부분에 나비 모양의 안경 쓰고 나오더라고요. 저도 왜 갑자기 쓰고 나오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소품을 쓰더라도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 김희중 위원

- 사실 확인이 어려운 타사 뉴스 인용 보도 시 왜곡·오보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최근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관련 뉴스가 연일 보도 되고 있음. 혹시나 연합뉴스TV도 과거 관련 보도가 있었는지 찾아보니 2022년 3월 7일(뉴스포커스, 11:18) '김만배 "윤석열 통해 사건 해결"...'이라는 기사로 리포트 되었음을 확인함. 당시 연합뉴스TV는 뉴스타파 기사를 인용해 김만배 씨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검사 시절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를 주장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것임. 그러나 연합뉴스TV가 인용해 보도한 기사는 뉴스타파가 김만배 씨 발언을 일부 생략하고 편집한 상태로 보도한 내용이었음. 뉴스타파가 녹취록 원문 전체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김 씨의 발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해 보도하는데 한계는 있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사실 확인이 어려운 타사 기사 인용 보도는 언론의 오랜 관행일 수도 있을 것임. 모든 언론이 다 다룬 주요 뉴스를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연합뉴스TV가 보도하지 않는다면 보도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인식도 깔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함. 어떤 이유에서라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타사 기사를 연합뉴스TV가 인용 보도해 결과적으로 오보를 냈고, 시청자들에게 혼선을 준 것이 사실임. 따라서 향후 사실 확인이 어려운 인용 뉴스에 대한 취재 가이드라인 마련과 준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연합뉴스TV '단독 보도' 사회 분야에서 두각... 다만 정치권과 정부 등 비판과 견제가 필요한 타 분야에서도 비중 있는 '단독' 많이 나와야, 최근 3개월간 연합뉴스TV에서 '단독보도'한 내용을 살펴보니 대체로 마약과 사건·사고 등 사회 분야에서 매우 두각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함. 다만, 언론이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그릇된 것을 고발하고 대책을 만들도록 견제해야 할 취재원인 정치권과 정부 부처, 공공 기관 관련 단독보도는 다양하게 찾아보기 어려워 아쉬움도 있었음. 단독 보도의 분야를 다양화하고 뉴스성이 강한 단독보도 콘텐츠를 발굴해 보도함으로써 연합뉴스TV에 대한 뉴스시청률 제고로 이어지길 바람.

▲ 추승호 보도본부장

- 당시 리포트를 살펴보니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정치권 논란으로 간

접 인용 처리했더라면 그나마 문제가 조금 덜했을텐데, 직접 인용보도를 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도가 이뤄졌나 경위 조사를 해보니까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녹취록을 전문으로 입수하려고 했지만 입수가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언론들이 보도하고 하니까 따라서 보도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사실 확인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인용보도한 게 확인됐고, 뉴스타파 보도가 조작 사실이 거의 드러난 상황이어서 저희가 공식사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두 차례 사과방송을 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하루 동안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그동안 타매체를 옥석 가리지 않고 너무 쉽게 인용보도하던 관행이 이번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인용해서 보도했다고 해도 잘못된 경우에는 결국 책임은 저희한테 돌아옵니다. 저희가 취재한 것과 똑같이 정확하게 팩트체크를 했어야 했는데 그런 점이 미비했습니다. 사과방송 직후 팩트체크 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게이트 키피ng 체계를 어떻게 할지 그 내규를 마련해서 어제 저희가 보도국에 공개를 했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또 타사 인용 보도와 관련된 내규도 만들어서 어제 같이 게재하고 시행했습니다.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사회부 이슈팀의 단독기사가 많고 다른 출입처에는 단독이 적은 이유는 물론 이슈팀이 열심히 하는데 따른 것은 당연한 얘기이구요. 출입처가 공급하는 기사의 적고 많음에도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부, 특히 경찰 출입 같은 경우는 특성상 사회 현상을 발로 뛰며 발굴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독 기사가 자주 나오는 현상이 있구요. 정당이라든가 부처, 공공기관 이런 곳은 상대적으로 관급 기사가 많죠. 자체적으로 출입처에서 공급해 주는 기사가 많다 보니까 저희 인력으로는 그 공급해 주는 기사를 적절하게 소화하는 것도 벅찬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당 출입처의 문제점을 발굴해서 보도하는 게 좀 적은데요. 언론에 가장 기본이 되고 우선이 되는 기능이 견제 기능 아니겠습니까?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취재하겠습니다.

▲ 손영준 위원장

혹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타사 보도 인용하는 매뉴얼을 이제 만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비밀스러운 내용이 아니면 나중에 위원님들께 한번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예, 내용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게이트 키피ng 내용은 20개 조항이고요, 타사 인용보도 내용은 15개 조항입니다. 촘촘하게 만들도록 노력했습니다.

▲ 손영준 위원장

예, 아주 이런 것들을 어떤 내용인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연합뉴스TV가 이런 기준을 만들고 또 그것이 언론계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 서신석 위원

- 연합뉴스TV의 9월8일 [씬속뉴스] '영웅이 전용 번호'... 임영웅 전국투어 콘서트 전담 콜센터 등장, 씬속뉴스의 취지에 맞지 않는 임영웅의 10월 콘서트 홍보 광고로 보인다. 스타급 연예인 등을 등장시켜 클릭수를 높이기보다는 scene(씬)속 뉴스 기획 취지에 맞는 좋은 기획으

로 클릭수를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씬(scene)속 뉴스"의 scene의 뜻을 찾아보니 현장, 상황, 사건, 광경, 장면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동안 씬속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들은 Scene에 맞는 현장, 상황, 사건들의 뉴스가 보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영웅이 전용 번호'... 임영웅 전국투어 콘서트 전담 콜센터 등장"은 콘서트 콜센터 등장이 뉴스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뉴스 내레이션의 전체 내용이 임영웅의 콘서트 홍보 내용이며 특히 "치열한 경쟁 뚫고 콘서트 티켓을 손에 쥐는 사람은 어떤 기분일지..." 멘트는 팬들의 티켓 구매 유도 멘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씬속뉴스 보도 9월4일자 "아파트 주차장에서 롤스로이스 '쿵'..." "괜찮다"는 피해 차주 알고 보니"의 경우 105만회의 클릭수를 가져왔다. 비록 유명 연예인의 선행 내용이지만 씬속뉴스 기획 의도에 따라 시청자들의 충분한 클릭수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영방송 연합뉴스TV의 씬속뉴스의 좋은 보도 기획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 연합뉴스TV의 8월18일 [다다를인터뷰] "'동료 경찰 안전 위한 지원 근무가 '출동 수당 부당 수령'이라뇨' 청소년들이 꿈을 실현하고 사회의 모순을 알리고 또한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좋은 기획 보도였다고 생각한다. 연합뉴스 TV가 시청자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다다를인터뷰의 기획에 맞는 좋은 인터뷰 뉴스라고 본다. 다다를인터뷰의 뉴스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의도와 부합한 인터뷰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다다를인터뷰의 기획의도가 "모두 다 다르고, 모두에게 다다를 이야기"의 내용과 같이 방송되는 내용이 인터뷰 대상들이 다 다름을 잘 나타내고 있고 또한 시청자들이 인터뷰 내용들을 보고 받아드리는 생각과 감정, 감동이 다 다르게 느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계속 모니터링 해오고 있지만 인터뷰의 대상들과 사건들의 내실 있는 기획취재와 내용에서의 감동의 스토리가 있어 시청자들의 클릭 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동료 경찰 안전 위한 지원 근무가 '출동 수당 부당 수령'이라뇨"의 인터뷰 또한 2014년, 만 18세의 나이로 그 해 '최연소'로 경찰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8년 근무 후 제복을 벗으며 '사랑했고, 미워했던 조직'을 떠난다며 SNS에 올린 게시물이 560만 넘는 조회수 남긴 20대 후반, 경찰 배지를 반납한 여성이 밝히는 '퇴직 이유' 를 다다를 인터뷰가 취재하여 보도 하므로 이 또한 50만 조회수가 넘었다. 단순히 560만 조회수를 넘은 인물을 인터뷰해서 많은 클릭수가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취재 대상이 시청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도 다다를인터뷰가 기획의도에 맞는 사건과 사회적 이슈 인물들을 대상으로 연합뉴스 TV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리고 교훈을 주며 시청자가 찐 팬이 될 수 있는 인터뷰 보도가 계속 되었으면 한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씬속뉴스' 임영웅 전국 콘서트 전담 콜센터 등장을 저도 봤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광고성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장에게 왜 광고성으로 오해가 할 만한 아이템으로 했느냐 물었더니 광고성은 전혀 아니고 임영웅에 대한 관심이 워낙 커서 많이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광고성이 안 되는 게 임영웅은 원래 예매 딱 시작되면 1분 안에 티켓이 매진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광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앞으로는 이런 오해 받을 아이템은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다다를 인터뷰' 격려해 주셨는데요. 다다를 인터뷰를 주로 하고 있는 박현우 기자가 아주 발군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뿐만 아니라 본 방송에까지 채택돼서 방송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관련해서 회사에서 수여하는 상도 받았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칭찬 격려 잘 전

달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강건기 위원(서면제출)

- 매주 일요일 정오에 방송하는 대한민국 곳곳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풍경과 명소, 맛집, 지역 특산물 등을 찾아 소개하는 다큐 여행 프로그램으로 주말에 편안하게 시청하고, 좋은 정보를 얻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해설하는 박선영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신뢰감과 생생한 명소, 풍경과 어울려서 활기를 느끼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프로그램의 진행방식은 지역별 명소의 풍경을 여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설명하고 군침을 돌게 하는 맛집 소개, 방문객들의 자연스러운 여행 모습, 음식을 먹는 모습을 카메라에 함께 담으면서 소탈하게 방문객들의 소감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여 시청할 때 편안함을 느끼게 해서 좋습니다. 특히, 방송시간이 15분 내외로 시청하는 데 집중도 되고 부담이 없어 좋았습니다.

-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방송하는 연중기획 공동 프로젝트 '하모니'를 시청하면서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낯선 한국이라는 나라에 정착해 가정을 이룬 사람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는 다문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에 정착하는 주인공의 생활과 일상을 보여주는 식으로 아나운서가 자연스럽게 해설하여 주인공에 대해 더 친숙함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 가정도 우리의 이웃이라는 문화를 확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연중기획 공동프로젝트 '하모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모니'는 한국에 정착한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대적으로 언어 소통이 어렵고 낯선 문화지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는 가족과 함께 진정한 우리의 이웃이 되어가는 과정을 따뜻하게 담아내겠습니다.

- '풍경여지도'에 관심을 갖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제작하지만 저희로서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프로그램입니다. 위원님께서 좋게 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욱 더 시청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내용으로 편안함을 드리는 동시에 정보 충족 욕구도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한층 매진하겠습니다.

▲ 진한수 위원

'외톨이형 범죄' 늘어...고립청년 불러내려면, 해당 보도는 최근 발생한 강력 범죄의 피해자들이 장기간 주변사람과 교류하지 않거나 사회로부터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고 있는 이른바 '고립 청년 또는 은둔 청년'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또한 고립·은둔생활이 주는 심리적 변화가 범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전문가(심리학과 교수)의 인터뷰가 이어지고, 고립, 은둔형 청년이 저지른 범죄가 사회적인 관심을 크게 받으면서도 사후 처벌에만 그 초점이 맞춰질 뿐, 이들에게 필요해 보이는 지원 등의 사회적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합니다. 최근 사회적, 문화적 환경 변화에 따라 고립·은둔형 청년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이들을 이해하고 도와야 한다는 사회적인 공감이나 정책적인 지원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앞서 언급된 범죄자들로 인하여 이들 전체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이

나쁘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도의 취지에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보도 과정에서 '전국의 고립 청소년 20-30만 명 추산'이라는 시각자료가 활용되는데 '청년'을 언급하다가 '청소년'이 언급되어 있는 시각자료에서 시청자들이 혼란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되고, 20-30만 명으로 추산된 청소년 또는 청년의 나이 대와 산정방식을 추가로 설명하거나 시각자료에 같이 표기하였다면 시청자들이 보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도 내용 중 "2003년부터 '히키코모리'라는 용어를 정의한 일본은 법을 고쳐 이들을 복지 수혜자로 지정했다"고 언급한 부분은, 일본이 법을 고쳐서 이른바 '히키코모리'들에게 어떠한 복지정책을 제공했는지,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아쉬웠습니다. 물론 국가적인 대책마련을 강조하기 위한 언급이었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하였다면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더 크게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최근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의 모습이나 범죄 장면을 보도한 후에, 고립과 단절의 심리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전문가의 인터뷰를 보도하여, 시청자들에게 '고립·은둔상태의 청년들이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선입견을 줄 수 있다는 우려심이 들었습니다. 물론 보도 말미에 섬세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모든 은둔·고립 청년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은 사회로 첫 발을 떼려는 이들의 고립을 부추길 수 있는 상황'이라는 내용을 언급하기는 했습니다만, 보도 앞에서부터 적절하게 언급을 하였다면 정책 단계에서만이 아닌 사회적인 선입견을 차단하기 위한 메시지로도 전달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해당 리포트가 한 편이다 보니까 거기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조금 제한적이라는 부분 이해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그래픽 내용 중에서 어떤 건 청년으로 돼 있고 어떤 건 청소년으로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인용한 통계자료에 그렇게 돼 있던 것 같습니다. 기준이 크게 다르지 않은 거라면 청소년, 청년을 통일시키는 게 시청자를 위해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히키코모리를 복지 수혜자로 지정한 법을 제정하면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또 실제로 그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까지 짚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짧은 리포트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된 범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저희가 조금 더 분량이 긴 취재물에 담아서 그런 부분까지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성희 위원

"비정규직 여성 5명 중 2명 성희롱 경험" (9/3), 오는 14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발생 1년을 앞두고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내용을 보도한 것으로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전체 응답자 26%가 성희롱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38.4%로 그 비율이 높았다는 점을 전달하고 있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도 분량이 너무 적어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더 찾아보게 되었는데, 설문조사 내용 중에는 조직 내 스토킹 등(설문조사 제목 '젠더폭력 특별 설문조사')이 포함되어 있었고 설문조사의 취지와 배경에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연합뉴스TV에서 본 설문조사 결과 중 '스토킹'과 관련된 내용 보도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비정규직 여성이 성희롱과 괴롭힘 등에 취약하다는 설문조사 결과는 이전에도 접한 경험이 있고 보도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서, 직장 내 구애 등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다루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신당역 살인 사건 발생 1년을 앞두고 설문조사를 한 건데. 저도 가급적이면 스토킹 관련 제목을 뽑고 그 위주로 보도하는 게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제목이 비정규직 여성에 대한 성희롱 쪽으로 나왔는데요. 연합뉴스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아마도 연합뉴스가 단신을 이제 그렇게 쓰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스토킹 관련 설문 내용도 있었는데, 그리고 충격을 줬던 스토킹 살인 사건 발생 1년을 앞두고 여론조사했던 것인데 기왕이면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기사화하는 게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 이상헌 위원

최근 묻지마 살인이나 폭력, 흥기난동 등 강력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사건사고에 대한 팩트 전달도 중요하지만 사회 분위기나 범죄 사각지대 등도 짚어주고, 정부의 대책 등 관련이슈를 다양하게 다뤄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으키거나 대책을 마련하도록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도 언론의 중요한 역할인데, 연합뉴스TV도 이런 보도들을 유연하게 다뤄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9월9일 '흥기난동 트라우마?...잇따르는 지하철 오인신고', 이어 '지하철 보안관...범죄 제압 속수무책'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최근 일어나는 지하철 소동에 대해 이용객들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살펴보고, 사건 사고에 시달려 작은 자극에도 반응하는 현상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지하철 안전을 담당하는 보안관들이 권한이 없어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인 점도 짚어줬습니다. 9월 초부터 지하철 소동관련 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단순히 팩트만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현상의 원인이나 분위기, 그리고 해법에 대한 고민을 가볍게나마 짚어줬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봤습니다. 다만, 지하철 소동이 잦은 상황인 만큼 실제로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해줬더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또 위 보도 전후로 뉴스현장(9/8), 뉴스프리즘(9/9)을 통해서도 강력범죄에 대한 뉴스를 내보냈는데, 전문가의 시각과 객관적인 시각에서 강력범죄와 관련한 주제들을 다뤘습니다.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적으로 민감해진 시기에 범죄와 관련한 이슈를 여러 각도에서 다뤘다는 것은 바람직했다고 생각하고요. 가능하다면 앞으로도 사건사고 팩트 뿐만 아니라 대응과 예방, 대책마련 등에도 무게를 두고 보도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요즘 묻지마 범죄 때문에 지하철에서 오인 소동 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제도 보면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웬 괴한이 후드티를 입고서 지하철 내를 마구 사람들 부딪히면서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칼부림 하는 줄 알고 그 다음 정거장에서 모두 내리는 바람에 사람들이 뒤엉켜서 다치는 사건도 벌어졌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묻지마 범죄 오인 소동 때 어떻게 승객들이 행동을 해야 안전할지, 대피 요령 같은 것도 한번 저희가 리포트로 다뤄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부에 얘기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우 위원

-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법사위 소위 통과(9.12), 요즘 흉악 범죄자를 체포한 시점에 수사기관이 그 범죄자의 인상 착의를 촬영한 기록 사진인 '머그샷'에 대한 공개가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날 뉴스는 머그샷 공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고, 법안이 특정강력 범죄와 성폭력 범죄 외에도 폭발물, 마약 범죄 등으로 신상공개 대상 범죄를 확대하고,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머그샷을 공개한다는 내용을 담겠다는 단신이었습니다. 오는 21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머그샷 공개 이슈에 대해 연합뉴스TV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뉴스현장'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에 대한 찬성 여론과 인격권을 감안해야 한다는 신중 의견까지 균형감 있게 잘 보도를 하고 있었기에 이 점을 분명 칭찬하고 싶습니다. 뉴스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명확히 전달해 시청자로 하여금 생각하는 계기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중적인 여론은 물론 전문적인 의견과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줌으로써 시청자가 판단을 내리기까지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연합뉴스TV가 앞으로도 이러한 두 가지의 역할과 기능을 지금처럼 계속 잘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 사회복지의 날 관련 뉴스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에 대한 아쉬움, 매년 9월 7일은 법정기념일인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지난 7일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을 비롯해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수석비서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 열렸고, 이로부터 한 주 동안은 사회복지주간이라고 해서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서 사회복지의 날 관련 행사가 지자체별로 진행됐습니다. 전국적으로 크게 진행되는 법정 기념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연합뉴스TV는 2021년 대통령의 영상 축사를 잠깐 소개된 것 외에는 지금까지 사회복지의 날 관련 뉴스가 보이질 않아 이 부분이 아쉽습니다. 공영언론으로서 취약계층 대변과 국민적 공감대를 이끄는 뉴스 보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수많은 뉴스가 나올 것이라 예상됩니다. 명절 연휴에도 시청자는 물론 국민에게 뉴스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취재에 불철주야 애쓰실 수밖에 없는 연합뉴스TV 관계자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해 여론을 환기하면서 균형과 깊이를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사회복지의 날 행사 저희가 챙겨야 하는데 경제부에서 다른 아이템들이 많다보니 못 챙겼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 손영준 위원장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그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및 회의 준비해주신 연합뉴스TV 관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9월 시청자위원 정례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끝)